

보도일시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

2024. 11. 11.(월)

## '24년 강원권 연안여객선 운항 종료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동해와 강릉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2척이 '24년 운항을 종료하고 '25년 3월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.

겨울철에는 잦은 너울성 파도 발생 등 해상기상 악화로 인해 강원지역 여객선은 운항하지 않으며, 이 기간에는 선박수리·정비, 정기 안전검사 및 선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내년도 운항을 대비한다.

참고로, 강원권 여객선 항로 중 동해-울릉 항로는 10.27., 강릉-울릉 항로는 11.10.까지 운항했다. '24년도 강원-울릉항로 총 이용객은 약 16만명(157,823명)으로, 전년 대비 약 20% 감소했다.

동해해수청 관계자는 “겨울철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포항 또는 후포지역 여객선 이용을 권고”하며, “'25년도 동해, 강릉 여객선의 안전 및 쾌적 운항을 위해 겨울철 동안 선박 검사·점검 및 선원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	정철락 (033-520-6141)
		담당자	주무관	정재삼 (033-520-6143) 김소진 (033-520-6144)